

한부모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Impact on Quality of Life of Single-parent Female Head of Household Economic Stress

이현심, 한규철, 전기복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Hyun-Sim Lee(sim7173@svu.ac.kr), Kyu-Chul Han(han717bd@hanmail.net),
Gi-bog Jeon(gibog@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한부모여성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경제적 스트레스가 삶에 질 즉 경제적 만족도와 신체적 건강상태 그리고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모자보호시설에 거주하는 430명의 표본을 분석자료 활용했다. SAS 9.1(Statistical Analysis System)을 이용하여 한부모여성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설정된 연구모형에 의해 분석한 결과, 경제적 만족도,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디스트레스 즉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여성가구주가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만족도와 신체적 건강 상태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한부모여성가구주 | 삶의 질 | 경제적 스트레스 |

Abstract

This study in the lives of single-parent female households demographic and economic variables and economic stress quality financial satisfaction and physical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distressed affect were analyzed. The study took advantage of an analysis of a sample of 430 people living in care facilities nationwide cap material. Using SAS 9.1 (Statistical Analysis System) were analyzed by the research model to set a single-parent female head of household demographic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economic satisfaction, physical health status,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psychologically distressed. Also was identified as a single-parent female households experience economic stres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ir quality of life. Especially, showed the biggest influence on the psychologically distressed was a significant influence financial satisfaction and physical health status in.

■ keyword : | Single-parent Female Head of Households | Quality of Life | Economic Stress |

I. 서론

다원화된 현대사회 구조 속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형

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 이혼율 상승과 미혼모 증가 등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거나 보호해줄 수 있는 시설 증가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구 수는 '05년 1,370천 가구에서 '10년 1,594천 가구, '11년 1639천 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05년 8.6%에서 '10년 9.2%, '11년 9.3%로 증가하였다[1].

한편,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는 2005년도 1,083,020가구, 2010년도 1,246,690가구, 2011년도 1,278,034가구[2]로 갈수록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가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한부모여성가구는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 심리·사회적 문제 등에 노출되어 있다. 한부모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단순노무자 비율이 전체 한부모여성가구의 45.4%로 조사되었으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보조금도 여성과 아동을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정도의 액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는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경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로 말미암아 삶의 질의 하위영역인 경제적 만족도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신체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들에 기초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부모여성가구주는 경제적 부양자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만성적 긴장, 우울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4]. [5]의 서울시 소재 모자보호시설 입소 대상자로 한 연구에서도 모의 대부분이 저임금 직종에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약 3/2 정도는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주들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노동시장에 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거나 자녀를 양육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일반 기혼여성보다 스트레스나 죄의식에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6]. [7]는 한부모여성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과 불안정한 고용상태, 낮은 소득수준, 경제적 문제, 경제적 스트레스, 학령기의 자녀 교육문제, 가족의 건강문제, 자립방안과 복지정책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한부모여성가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며 파악하는 데는 매우 유익하지만, 그들의 기초적 특징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현재 '삶의 질', 가장 절실한 경제적 문제에 의한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미비한 한 실정이다. 앞선 연구들에서 한부모여성가구들의 큰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경제적 빈곤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가 삶의 질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여성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경제적 스트레스가 삶에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여 그 결과에 따른 실생활에 합당한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부모여성가구주들이 자립을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II. 이론적 고찰

1. 경제적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관계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의 실태조사는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고 보건복지부의 주관 아래 전국의 모자가정의 현황을 매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조사의 기준은 여성복지사업지침을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는 양부모가구와는 다르게 여성가구주가 생활에 대한 책임과 가족양육의 이중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빈곤가정에 대한 접근법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처럼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는 낮은 소득수준과 이중적 생활 부담으로 경제적 빈곤에 따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기에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8].

1.1 경제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만족도

[9]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한부모여성가구의 제일 큰 어려움의 1순위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스트레스는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스트레스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자녀교육비와 관련되어 있었다. [10]의 서울시 한부모여성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51.0%), 경제적 어려움(35.9%)으로 밝혀졌다[11]. [12]의 연구에서도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주가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경제적 스트레스라고 하였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주의 삶의 질의 하위요인인 경제적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양부모가정에서도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지만, 특히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주의 경우는 양부모가정에 비해 훨씬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2 경제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건강상태

한부모가정 실태조사에서 전체의 42.2%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조사되었다[13].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주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신체적 건강상태는 일반 여성들보다 훨씬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14]. 예측할 수 없는 소득,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입, 실직으로 인한 일자리의 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동이 빈번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만성질환 등의 건강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되어 스트레스 및 건강상태 저하를 지적하고 있다[15]. 즉 한부모여성가구주의 경제적 빈곤, 불충분한 영양,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의 원인으로 일반여성들에 비해 신체적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취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17]의 모자보호시설 한부모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의 43.95%가 건강상태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건강상태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으며 취업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1.3 경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18]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동시에 한부모여성가구주의 대다수가 심리적 건강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들은 대체로 부의 상실로 인한 물질적 어려움 즉, 경제적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한부모여성의 이중적인 역할 부담과 함께 만성적인 심리적인 디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19]. 한부모여성가구주들이 생활가운데 인지하는 스트레스에는 경제

적 빈곤, 자녀교육 문제, 건강문제, 심리·정서적 문제, 주거환경 문제, 폐쇄적인 대인관계 문제 등이 있다[20]. 또한 부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장 큰 문제이며, 이러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단순한 물질부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의 우울증과 스트레스, 상대적 박탈감 등과 같은 부정적 환경과 연결되어 가족기능이나 체계와 역학관계를 가지며 복합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21].

[22]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빈곤층의 여성들은 빈곤으로 인해 나타나는 물리적인 경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절망감, 사회적 낙인감, 부정적인 자기동일시, 무력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심리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며 이러한 반복된 경험은 심리적 디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23]에서 일상생활의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의 관계 속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과 가설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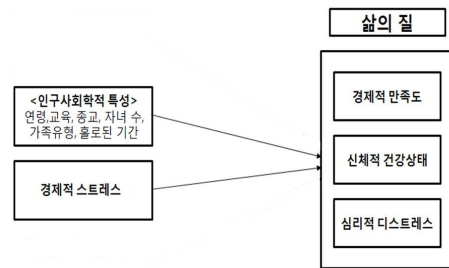


그림 1. 한부모여성가구주의 삶의 질 연구모형

가설 1. 한부모여성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 수, 가족유형, 홀로된 기간은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한부모여성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 수, 가족유형, 홀로된 기간은 신체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한부모여성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

녀 수, 가족유형, 홀로된 기간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한부모여성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한부모여성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한부모여성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모집단의 표본추출

모집단은 전국 모자복지시설에 거주하는 800세대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비확률편의 (convenience sampling) 방법으로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여성가구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배포하여 회수된 질문지 중 내용기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43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9.1(Statistical Analysis System)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Frequency)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을 실시하였으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평균±표준 편차 (최소~최대)
연령	20세 미만	1(0.22)	38.00±6.29 (18~62)
	20세-30세 미만	41(9.46)	
	30세-40세 미만	218(50.75)	
	40세-50세미만	155(36.13)	
	50세 이상	15(3.44)	
직업	시간제 임시직	136(31.53)	
	영세업체 근무	16(3.67)	
	일반사무직	38(8.86)	
	생산직	25(5.83)	
	판매/서비스업	65(15.12)	
	자영업자	10(2.38)	
	공공근로	18(4.32)	
	무직	41(9.50)	
종교	기독교	217(50.44)	
	천주교	19(4.42)	
	불교	55(12.83)	
	유교	1(0.22)	
	무교	138(32.08)	
교육 수준	초등학교	10(2.40)	
	중학교	34(7.86)	
	고등학교	21(5.02)	
	전문대학	274(63.76)	
	대학교	53(12.33)	
	대학원	38(8.79)	
자녀 수	1명	176(40.86)	1.76±0.76 (1~6)
	2명	193(44.95)	
	3명	54(12.47)	
	4명 이상	7(1.72)	
자녀 연령	7세 미만	123(28.57)	
	7~12세	156(36.19)	
	13~17세	134(31.19)	
	18세 이상	17(4.05)	
사유	사별	59(13.73)	
	이혼	295(68.63)	
	별거	14(3.27)	
	미혼모	42(9.80)	
	연락두절	4(0.87)	
홀로된 기간	기타	16(3.70)	4.86±3.24 (0~20)
	1년 이하	55(12.70)	
	2년	62(14.51)	
	3년	82(19.05)	
	4년	46(10.66)	
	5년	61(14.29)	
	6년	34(7.94)	
	7년	31(7.26)	
	8년	32(7.26)	
	9년	7(1.59)	
유형	10년 이상	20(4.76)	
	수급권자	357(83.1)	
	법정모자가정	73(16.89)	

2. 한부모여성가구주의 삶의 질

2.1 경제적 만족도

한부모여성가구주의 삶의 질에 있어 하위영역인 경제적 만족도는 평균 2.50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2. 한부모여성가구주의 경제적 만족도

문항내용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요즘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430	3.13	0.85
요즘을 집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430	3.05	0.81
요즘을 귀하의 식생활 수준에 대해서	430	2.85	0.85
취미, 오락, 여가활동에 대해서	430	2.43	0.97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430	1.98	0.93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 대해서	430	1.94	0.92
요즘을 의생활 수준에 대해서	430	2.40	0.84
요즘을 월수입에 대해서	430	2.22	0.90
전 체	430	2.50	0.62

2.2 신체적 건강상태

한부모여성가구주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전체 2.73점으로, 신체적 피로는 2.50, '자신의 체중과 관련하여' 2.59, '활기상태'는 2.63, '신체적 불편' 2.67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한부모여성가구주의 신체적 건강상태

문항내용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요즘을 신체상태에 대해서	430	2.69	0.90
활기상태(기운, 기력, 힘)에 대해서	430	2.63	0.89
귀하의 활동정도에 대해	430	2.83	0.91
귀하의 수면상태에 대해서	430	2.81	0.90
귀하의 배뇨, 배변 상태에 대해서	430	3.12	0.91
자신의 체중과 관련하여	430	2.59	0.93
요즘을 신체적 피로와 관련하여	430	2.50	0.89
요즘을 신체적 불편과 관련하여	430	2.67	0.87
전 체	430	2.73	0.69

2.3 심리적 디스트레스

한부모여성가구가 경험하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전체 2.86점으로 나타났다. 느낌이, 쉽게 눈물이 나며, 잠을 설치며, 외로우며, 기분이 울적하다 등이 상대적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다.

표 4. 한부모여성가구주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문항내용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허무한 느낌이 든다.	430	3.25	1.09
무슨 일이트 의욕이 없다.	430	2.82	1.10
쉽게 눈물이 나고 울고 싶다.	430	3.01	1.13
밤에 잠을 설치거나 아침에 일찍 깬다.	430	3.10	1.16
외로움을 느낀다.	430	3.13	1.06
기운이 없고 기분이 울적하다.	430	3.06	1.06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430	2.34	1.11
낙심되거나 우울한 느낌이 든다.	430	2.80	1.05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 같다.	430	2.66	1.15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랄 때가 있다.	430	2.60	1.08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잘 안 됨.	430	2.88	1.16
나는 매사에 차분하고 침착하다.	430	2.88	1.02
조급한 마음이 들어 안절부절 못한다.	430	2.69	1.05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아 극복할 수 없음	430	2.66	1.04
하찮은 일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한다.	430	2.96	1.14
전 체	430	2.86	0.82

2.4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3.60점으로 일상생활에서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한부모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스트레스

문항내용	빈도	평균	표준 편차
공과금이나 기타 청구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	430	3.39	1.06
돈 때문에 꼭 필요한 물건도 사지 않고 미룸	430	3.93	0.94
돈 때문에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음	430	2.97	1.11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먹은 습관을 바꿈	430	3.64	0.96
교통비 절약	430	3.62	1.03
여가나 오락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했던 적이 있다.	430	4.08	1.00
전기나 수도, 가스 등의 사용을 줄여야 함	430	3.77	1.06
자녀 교육비 및 과외 활동을 줄임	430	3.54	1.19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 도움	430	3.45	1.13
전 체	430	3.60	0.72

3. 변인들 간의 단순상관관계 분석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수, 가족유형, 홀로된 기간 경제스트레스, 심리적 디스트레스, 경제만족도, 신체적 건강상태를 살펴본 결과, 연령과 교육수준 $r=-.20$, 종교 $r=.73$, 자녀수 $r=.24$, 가족유형 $r=-.00$ 홀로된 기간

r=.39, 경제적 스트레스 r=.20, 심리적 디스트레스 r=.11, 경제만족도 r=-.80, 신체적 건강상태 r=-.46로 나타났다. 모의 연령에 대해 자녀 수, 홀로된 기간, 경제적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수준과 종교 r=.29, 자녀수 r=-.37, 가족유형 r=-.37, 홀로된 기간 r=-.15, 경제적 스트레스 r=-.38, 심리적 디스트레스 r=-.15, 경제만족도 r=.04, 신체적 건강상태 r=-.0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대해 홀로된 기간,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되는 연구[24][25],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낮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종교와 관련하여 자녀수 r=.03, 가족유형 r=.73, 홀로된 기간 r=.18, 경제적 스트레스 r=.92, 심리적 디스트레스 r=-.77, 경제만족도 r=.54, 신체적 건강상태 r=.8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자녀수와 가족유형 r=.10, 홀로된 기간 r=-.11, 경제적 스트레스 r=.18, 심리적 디스트레스 r=.50, 경제만족도 r=.29, 신체적 건강상태 r=-.22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대해 가족유형은 통계적으로 양의 상관을 가지고 있다.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의 모자가정이 많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족유형과 관련하여 홀로된 기간 r=0.020, 경제적 스트레스 r=-.66, 심리적 디스트레스 r=-.33, 경제만족도 r=.49, 신체적 건강상태 r=.8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의 모자가정 또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법정모자가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홀로된 기간 역시 경제적 스트레스 r=-.79, 심리적 디스트레스 r=.87, 경제만족도 r=.07, 신체적 건강상태 r=-.53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홀로된 기관과 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경제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r=.36, 경제만족도 r=-.48, 신체적 건강상태 r=-.31로 나타났다.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해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만족도, 신체적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음의 상관을 가지고 있는데, 즉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심리적 디스트레스는 높아지고, 경제만족도, 신체적 건강상태는 낮아짐이 확인 되었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관련한 경제만족도 r=-.48, 신체적 건강상태 r=-.46로 나타났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해 경제만족도, 신체적 건강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을 가지고 있다. 즉,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경제만족도, 신체적 건강상태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경제만족도와 관련하여 신체적 건강상태 r=.53로 나타났다. 즉 경제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체적 건강상태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6. 삶의 질의 단순상관관계

	연령	교육	종교	자녀 수	가족 유형	홀로 된 기간	경제적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경제적 만족도	신체적 건강
1	-	-	-	-	-	-	-	-	-	-
2	-.20***	-	-	-	-	-	-	-	-	-
3	.73	.29	-	-	-	-	-	-	-	-
4	.24***	-.37	.03	-	-	-	-	-	-	-
5	-.00	-.37	.73	.10*	-	-	-	-	-	-
6	.39***	-.15**	.18	-.11	.20	-	-	-	-	-
7	.20***	-.38	.92	.18	-.66	.79	-	-	-	-
8	.11*	-.15**	-.77	.50	-.33	.87	.36***	-	-	-
9	-.80	.04	.54	.29	.49	.07	-.48***	-.48***	-	-
10	-.46	-.04	.84	-.22	.84	-.53	-.31***	-.46***	.53***	-

***p<0.001 **p<0.01, *p<0.05

4.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1 경제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델 1에서는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투입한 결과 모델의 R²값을 가장 크게 하는 회귀변수는 종교와, 가족유형으로 선택되었지만,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 수, 가족 유형, 홀로된 기간 모두 경제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 단계로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을 모델 2에 투입된 결과 설명력(R²=0.242)은 24.2% 나타났다. 즉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델 1의 설명력($R^2=0.018$) 1.8%보다 22.4%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표 7. 경제적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Model 1		Model 2	
	B	Beta	B	Beta
연령	-.010	-.102	-.002	-.018
교육수준	-.010	-.038	-.004	-.015
종교	.076	.062	.123	.101*
자녀 수	.039	.048	.023	.029
가족 유형	.085	.052	.039	.024
홀로된 기간	-.001	-.005	.003	.015
경제적 스트레스			-.414	-.485***
상수	2.836		3.943	
R ²	0.018		0.242	
adjusted R ²	0.004		0.230	
R ² change			0.224	
F	1.270		19.26***	

*p<.05 **p<0.1, ***p<0.01

4.2 신체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델 1에서 분석결과 모델의 R^2 값을 가장 크게 하는 회귀변수는 종교와, 가족유형으로 선택되었지만, 연구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종교, 자녀 수, 가족 유형, 홀로 된 기간 모두 신체적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 단계 모델 2에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을 투입한 결과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델 2의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설명력($R^2=0.116$)은 11.6%로 모델 1과 비교할 때 9.30%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표 8.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영향요인

	Model 1		Model 2	
	B	Beta	B	Beta
연령	-.005	-.047	.001	-.007
교육수준	-.005	-.018	-.001	-.003
종교	.098	.072	.131	.097*
자녀 수	-.022	-.024	-.033	-.036
가족 유형	.133	.072	.100	-.054
홀로된 기간	-.017	-.079	-.014	.066
경제적 스트레스			-.298	-.313***
상수	2.957		3.755	
R ²	.023		.116	
adjusted R ²	.009		.101	
R ² change			.093	
F	1.62		7.89***	

*p<.05 **p<0.1, ***p<0.01

4.3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델 1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투입한 결과 종교만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높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종교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자녀 수, 가족 유형 및 홀로된 기간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단계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을 모델 2에 투입된 결과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 디스트레스도 높게 나타났다. 모델 2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R^2=0.159$)은 15.9%로 모델 1 보다 12.70%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표 9.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요인

	Model 1		Model 2	
	B	Beta	B	Beta
연령	.006	.043	-.003	-.020
교육수준	-.037	-.102	-.043	-.119**
종교	-.134	-.081*	-.182	-.110*
자녀 수	.044	.040	.059	.054
가족 유형	-.050	-.022	-.003	-.001
홀로된 기간	.018	.070	.014	.055
경제적 스트레스			.423	.364***
응집성				
적응성				
상수	3.088		1.957	
R ²	.032		.159	
adjusted R ²	.019		.145	
R ² change			.127	
F	2.39*		11.40***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적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들의 삶속에서 느끼는 경제적 만족도,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한부모여성가구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대응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한부모여성가구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의 평균값은 3.6점으로 나타나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가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그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6]가 발표한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의 여성의 빈곤화(feminization of poverty)는 특정집단으로 간주되고 우리나라의 한부모여성가구의 빈곤율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또한 [27]에 따르면 전국 1,589만 가구 중에 한부모가족이 137만(8.6%) 가구이며, 이 중 108만(79%) 가구가 한부모여성가구로 구성되어 대부분의 가정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실증적 자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구주들이 기대하는 자녀교육수준은 대학진학 희망비율에서 아들은 54%, 딸은 41%에 불과해 일반가정에 비해 그 비율이 매우 낮아 그들 자녀의 상대적 빈곤화가 예상된다[28].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적 스트레스 변인 연구 결과에서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의 연령, 교육수준, 자녀 수, 가족 유형, 홀로된 기간은 경제적 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종교는 경제적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경제적 만족도는 높아지고 경제적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종교생활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29]연구와 같은 견해이다.

신체적 건강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서 연령, 교육수준, 자녀 수, 가족 유형, 홀로된 기간은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 중 종교 및 경제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삶의 질의 하위영역인 신체적 건강상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경제적 스트레스, 종교로 파악되었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서 연령, 교육수준, 자녀 수, 가족 유형, 홀로된 기간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중 종교는 경제적 스트레스,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삶의 질의 하위영역인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경제적 스트레스, 종교 순으로 파악

되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경제적 만족도 및 신체적 건강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역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전체 2.86점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는 상황적 특성으로 인한 빈곤한 환경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첫째,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여성가구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가 강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실증적인 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한부모여성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건강상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준하여 법정모자가정 역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여 의료수급권자로 혜택 받을 수 있는 정책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경제적 스트레스에 따른 함의는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의 역량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수동적인 형태의 직접적인 서비스(Direct Service)의 제공에 국한시키지 말고 아웃리치를 활용한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자원들을 활용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모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모의 신체적 건강상태의 개선과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모자보호시설 지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부모여성가구들이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여 경제적 위기와 가족해체의 위기로부터 보호받음과 동시에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건전한 가정복지의 향상을 꾀하며 아울러 지역 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충하고 원활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통계청, 2011 인구주택총조사, 2012.
- [2] 통계청, 2011 인구주택총조사, 2012.
- [3] 김영화, 권신영, 최영진,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2002.
- [4] L. Pearlin and A. Lieberman, "Social Sources of Emotional Distress," In R. Simmons(ed.), *Research in Community and Mental Health*, pp.217-248, 1979.
- [5] 임영선, *저소득 모자가족의 사회적 적응향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2004.
- [6] S. McLanahan and K. Booth, "Mother-only families: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1, pp.557-580, 1989.
- [7] [http:// www.kihasa.re.kr](http://www.kihasa.re.kr).
- [8] 김영희,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9] 황은숙, "서울시 한부모가정 실태조사 연구",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제1권, 제1호, 2006.
- [10] 한국여성개발,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2001.
- [11] 공미혜,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생활실태",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 1985.
- [1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저소득 여성가구주 자활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실천의 실천과제*, 성동지역 복지연대, 2001.
- [13]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2001.
- [14] 안정선, "도시영세지역 여성의 생활실태 및 건강 실태 조사", *공주전문대논총*, Vol.17, 1991.
- [15] D. Belle, *Lives in Stress: Women and Depression*, Beverly Hills, CA: Sage, 1982.
- [16] 정영숙, 이현지, *장애인복지론*, 학연사, 2007.
- [17] B. Wolf, *Low-Income Mothers at Risk: Psychological Effect of Poverty-Related Stress*, Ed. D. diss, Harvard University, 1984.
- [18] J. Lempers, D. Clark, and R. Simons,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60, 1989.
- [19] 김영희,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20] 김영희,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6.
- [21] A. Zautra, "The measurement of Quality kife : intorduction to the specilal issu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1, 1983.
- [22] 김영희,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23] 임영선, *저소득 모자가족의 사회적 적응향상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24] B. Spilker, *Quality of Life Assessments in Clinical Trials*. Raven Press, 1990.
- [25] 서명선, *도시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의 취업 영향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 [26]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한부모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여성부, 2001.
- [27]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06.
- [28] 정영숙, 이현지, *장애인복지론*, 학연사, 2007.
- [29] 김종열, *국가보훈증상이자의 사회통합과 삶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저 자 소 개

이 현 심(Hyun-Sim Lee)

정회원



- 2006년 2월 : 연세대학교 상담학
과(석사)
- 2010년 2월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
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3년 3월 현재 : 서울벤처대학
원 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 상담, 노인생활 콘텐츠

한 규 철(Kyu-Chul Han)

정회원



- 2012년 2월 : 서울벤처대학원대
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상담학석
사)
- 2013년 3월 ~ 현재 : 서울벤처
대학원 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
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사회복지, 노인상담, 노인성(性) 콘텐츠

전 기 복(Gi-Bog Jeon)

정회원



- 2004년 2월 : 고려대학교 행정학
과(석사)
- 2013년 3월 현재 : 서울벤처대학
원 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박
사과정

<관심분야> : 사회복지, 안전, 노인생활 콘텐츠